

단간 직립형 조의 재식거리별 생육 및 수량특성

류종수^{1*}, 곽강수¹, 한원영¹, 윤영호¹, 배진우¹, 정기열¹, 정미혜¹, 박진기¹, 백인열¹

¹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

[서론]

조는 단백질 9~12%, 칼슘 10~20mg/100g이 함유돼 있고, 식이섬유, 비타민 B, 철분 등 미량원소가 풍부하며, 항산화 물질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. 단아메는 최근에 개발된 품종으로 줄기 길이는 1m 내외로 기존 품종보다 약 20%가 작아 쓰러짐에도 강하고 기계 수확이 가능하다. 신초형인 단간 직립형 조 ‘단아메’의 파종방법별 재식밀도에 따른 생육 및 수량특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시험품종인 단간 직립형 조 ‘단아메’를 이용하여 재식밀도를 60×5, 10, 15cm, 재식본수를 1주2본 및 1주3본으로 하여 생육 및 수량특성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단간직립형 조의 생육특성은 1주2본에서 재식거리별로 경장, 경태 및 수장은 15 > 10 > 5cm 순으로 높았고, 수량구성요소에서는 이삭수(개/10a)는 5 > 10 > 15cm, 수당립수(개)는 15 > 10 > 5cm 순으로 조사되었다. 천립중은 약 2.8g으로 주간거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1주3본에서의 생육특성 및 수량구성요소에서 1주2본의 특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이삭수에서 1주2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재식본수에 따른 수량은 1주2본 평균 432 kg/10a로 1주3본 평균 379 kg/10a보다 약 14%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, 주간거리별 수량은 1주2본 5cm에서 가장 높았으며 관행대비 8% 증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단간 직립형 조 ‘단아메’는 주간거리 좁을수록 수량이 증수하였고, 경장이 감소하여 기계 수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197101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*주저자: Tel. 055-350-1265, E-mail. enviryu@korea.com